

남공민

“연기 변신 자신있어요”

SBS ‘미녀 공심이’ 인권변호사로 ... 전작과 상반된 캐릭터



지난 2월 종영한 SBS TV ‘리멤버-아들의 전쟁’에서 인성사정없는 악인 남규만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던 남공민(39·사진)이 이번에는 돈 한 푼 안 받고 서민을 변호하는 인권변호사로 변신했다.

14일 방송을 시작한 SBS ‘미녀 공심이’를 통해서다. 남공민은 최근 SBS사옥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첫 등장하는 장면이 법정신이었지만 피고인석이 아닌 변호인석에 앉아있는 제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다”며 색다른 촬영 소감을 전했다.

“내 자리는 저기였는데...라는 생각을 했다”고 밝힌 그는 “전작과 180도 다른 역할이라 이 역할을 소화해내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도전”이라면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자신이 있다”고 든든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연기 경험이 많지 않은 민아의 캐스팅 소식에 “잘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고 털어놨다. 그런 동료 배우들의 우려를 의식한 듯 백수찬 PD는 전체 대본 리딩 전에 민아와 남공민, 은주완, 서효림 등 젊은 연기자 4명만의 대본 리딩 시간을 따로 마련해줬다.

남공민은 “첫 대본 리딩을 하면서 열정이 가득한 민아 씨의 모습을 보고 앞으로 좋은 연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민아 씨에게 ‘내가 시작할 때 너만큼 빨리 배웠으면 지금 알파치노쯤 됐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을 정도로 습득력이 빠르다”고 민아를 칭찬했다.

그는 극중에서 공심(민아 분)과는 로맨스를, 준수(은주완)와는 브로맨스 연기를 펼치게 된다. 특히 그가 맡은 단태는 준수의 집안과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설정이다.

그는 “은주완 씨와는 원래 친분이 있던 사이는 아니지만 오매가며 봤는데 너무 인사를 잘해서 저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 궁금한 적이 있었다”며 “단태와 준수가 오랜 친구 사이가 아니고 만나서 우정을 쌓아가는 관계인만큼 현실적인 연기로 그려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제가 아이러니가 생명한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러니마저 포기했어요. 아이러니로 저의 다짐을 보여드리겁니다.(웃음)”

아쉬운 외모와 스펙을 가진 것으로 설정된 공심이 역할 때문에 민아는 일자 앞머리에 귀 밑까지 오는 ‘뚝단발’을 하고 등장한다. 술에 취해 울거나 남의 방에서 자는 등 수위 망가지는 장면이 많다.

민아는 “망가지는 장면은 앞으로 촬영하면서 더 많아질 것 같다. 기대해서도 좋다”고 쾌활하게 말했다.

그는 “망가지는 장면을 제가 제대로 못해서 못 살리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은 했지만 망가지기 싫다거나 못 생기게 보이면 어쩌나 하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이 드라마에 출연하기로 한 뒤 그런 건 내리쳤다”고 다부진 각오를 전했다.

간간이 조연으로 출연한 적은 있지만 주연은 처음. 스스로 “내가 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다.

그는 “첫 주연작이 영광스러운 만큼 과분하다”며 “비중이 작지 않다보니 작품에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 많이 배려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같은 그룹 멤버 헤리가 SBS 수목극 ‘판파라’에서 주연을 맡아 극을 이끄는 중에 그도 SBS의 드라마에 출연하게 됐다. 민아는 “나란히 주연을 맡게 돼서 참 기분이 좋다. 헤리도 나름대로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 좋다”고 말한 뒤 헤리를 향해 “언니가 바빠서 모니터링은 잘 못하지만 응원한다!”라고 외쳐 폭소를 자아냈다.

“공심이는 잘난 것 하나 없어서 보잘것없어 보일 정도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아이예요. 그냥 공심이 라는 사람이 사랑스럽다는 생각을 하리게 될 것 같아요. 공심이가 더욱 사랑스러울 수 있도록, 제가 공심이의 마음을 잘 전달하겠습니다.” /연합뉴스



“소속사 옮겼어요”

투에니원 전 멤버 공민지

뮤직웍스에서 솔로 활동

투에니원을 탈퇴한 멤버 공민지가 백지영의 소속사 뮤직웍스에 새 동지를 틀었다.

뮤직웍스는 16일 “홍로서기를 결정한 공민지와 전속 계약을 맺었다”며 “여러 방면에서 성장 가능성 있는 아티스트로 다양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출신인 공민지는 이곳에서 솔로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작사, 작곡 등 뮤지션으로서의 재능을 선보일 예정이다.

내년 초 데뷔를 앞둔 소속사 보이그룹 마이틴의 조력자 역할도 맡아 후배 양성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뮤직웍스에는 백지영을 비롯해 유성우, 김구봉, 송유빈, 엠넷 ‘프로듀스 1010’에 출연한 김소희 등이 소속돼 있다. /연합뉴스



컴백 AOA ‘긴포갱’ 발언 사과

“1년 만의 컴백이어서 떨렸는데 좋지 않은 일로 많은 분들께 실망시켜 드려 죄송합니다.”

결그룹 AOA가 16일 오후 3시 서울 광진구 예스24라이브홀에서 열린 네 번째 미니 앨범 ‘굿 럭’(Good Luck) 쇼케이스에서 멤버 설현과 지민의 역사 지식 논란에 대해 재차 사죄했다.

리더 지민은 타이틀곡 ‘굿 럭’의 무대를 선보인 뒤 “앞으로 최선을 다해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결국 눈물을 보였다.

진행자 문세윤은 “실수이고 잘못이지만 친구들이 아직 어리고 배워가는 과정이니 이해하고 사랑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최근 설현과 지민은 온스타일에서 방송된 프로그램 ‘채널 AOA’의 퀴즈 코너에서 안중근 의사의 사진을 알아보지 못해 역사 인식 부족으로 질타를 받자 사과문을 냈다.

독립운동가에게 “긴포갱”(김두한의 일본식 발음)이라고 장난치듯 말한 대목에 비난 포화가 쏟아졌다.

논란에도 이날 0시 공개된 신곡 ‘굿 럭’은 7개 음원차트 1위를 석권했다. /연합뉴스



“사랑스런 모습 보여줄게요”

드라마 첫 주연 “영광스럽고 과분해”

민 아

TV 프로그램 1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Time, Program Name, and Description. Lists various news, entertainment, and educational programs.

Table with 4 columns: Time, Program Name, and Description. Lists programs on EBS 1 channel, including news, documentaries, and entertainment.

Horoscope section titled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Knowing Fate's Today's Fortune). Includes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and their corresponding horoscopes for the date May 17th.